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001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924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603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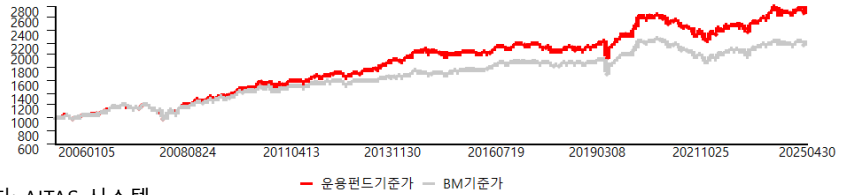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2.13%	2.55%	3.59%	6.85%	13.33%	14.01%	30.44%	177.96%
클래스 C	2.06%	2.35%	3.18%	6.00%	11.54%	11.31%	25.35%	67.17%
클래스 C-E	2.09%	2.42%	3.32%	6.28%	12.14%	12.21%	27.03%	27.17%
클래스 C-F	2.10%	2.48%	3.44%	6.53%	12.67%	13.01%	28.54%	67.10%
벤치마크	1.81%	1.83%	2.49%	3.18%	8.59%	8.11%	19.94%	123.4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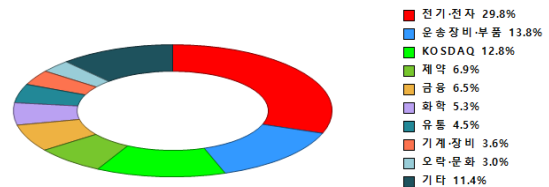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4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4월말, 주식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5.7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0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2.5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3.0	삼양식품	음식료-담배	2.0
하이브	오락-문화	3.0	이마트	유통	2.0
POSCO홀딩스	금속	3.0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KOSPI는 전월 대비 3.04% 상승한 2,556.61pt, KOSDAQ은 6.60% 상승한 717.24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발표로 글로벌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며 한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안도감과 함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되며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기대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이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 화장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 전자부품, 정유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91% 하락한 1,438.50원을 기록하며 원화 강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18.56% 하락한 58.2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기관투자자는 3조 5,472억 원, 개인투자자는 5조 2,497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10조 1,2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4월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되었습니다. 국고채 시장은 월 초 현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금리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통위의 금리 인하 기대도 강화되었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나, 5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장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 속 시장은 강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지속이 국고채 금리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28.8bp 하락한 2.272%, 10년 금리는 19.7bp 하락한 2.570%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5월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가 점차 완화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의향이 확인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정점을 지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고 인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멈추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주요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에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시장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조정을 보였으나 관세에 대한 우려가 피크를 지났다는 낙관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실시 등으로 인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4월 수출 데이터 또한 3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며 교역규모의 위축이나 관세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전에 기업들은 일부 안전 재고 확보를 위한 선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해당 이슈로 인한 수요 위축 가능성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증시 상승 구간 내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액티브 리스크를 축소할 계획이며 관세 영향이 제한된 업종 및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 등을 반영하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2.25% 수준을 선반영하여 전 구간 역캐리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인하 경로, 실물 지표 둔화 수준, 심리 위축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시차 등을 확인하며, 인하 사이클 최종 금리 수준과 속도를 가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국고채 금리는 한은의 최종금리가 현재 선 반영된 수준보다 더 낮아질 것인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국 금리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가격 부담 속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리는 하락 속도가 조절될 수 있겠으나, 결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와 경기 부진 심화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공약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성과 국제 수급 이슈는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고3년 2.20~2.40%, 국고10년 2.45~2.70% 전망하며, 듀레이션은 중립 이상 유지, 변동성으로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 흐름 속 시장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자산 신뢰도 저하가 텀 프리미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QT 축소, 재무부 바이백, SLR 규제 완화 등 금리 안정화 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나, 재정수지 개선 없이는 미 장기물 금리 하락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도 해당 흐름 반영하여 박스권 내 커브 스티프닝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는 관세 부과에 따른 실물지표 둔화가 장기를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선 과정에서 추경 논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국내 수급 이슈로 시장 초점이 점차 이동하며, 이에 월말 갈수록 커브는 스티프닝 압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 10-3년 스프레드 20~45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20~-5bp 전망하며, 스티프닝 전략 유지하나 박스권 상단 접근 시 중립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5월 금통위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공사채·은행채 역캐리 해소와 회사채·여전채 캐리 확보 수요에 크레딧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레벨 부담과 비우호적인 회사채 정기평정 등의 영향으로 강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행 시장은 3월(수요예측 참여 수요 모집 2.94배)과 4월(수요예측 참여 수요 모집 3.04배)에 이어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말 갈수록 6월 대선을 앞두고 추경 논의 내용에 따라 중장기 구간 크레딧 금리는 국고 시장에 연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구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국고 3y Spread 15~25bp, 은행/국고 3y Spread 20~30bp, 회사 AA-/국고 3y Spread 50~60bp 전망하며, 선별된 종목 위주로 BM대비 확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